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嶢煥
主幹 宋燾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㉒8498

每週 日曜 木曜 發行

今週一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뭇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法句經>

總會長에 7명이상 競合

單大會長도 2명이 立候補

◇……1970학년도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갈학생회장단 ◇……관리위원회에서는 총학생회장입후보 7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입후보자 등록을 지난7일…◇ ◇……로 마감했다. 이번 총학생회장에는 총7명의 입후보자가 출마하여 심한 난립상을 보…◇ ◇……이고 있으며 총학생회부회장 각단과대학 회장에도 師大의 4 명을 비롯하여 평균 2명 이…◇ ◇……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27명은 이미 9일 오후12시30분 총장실에서 고시하는 입후보 서식을 받아 금일 오전 9시부터는 중앙당에서 소견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신임 學生처장은 요즘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한 선거풍토조성을 촉구했다.

이번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을 기호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장

▲1번=李瑞行(哲3) ▲2번=李相一(食3) ▲3번=李甫熙(自工3) ▲4번=李寧九(法3) ▲5번=金洪高(行3) ▲6번=孫英一(哲3) ▲7번=林承宰(醫3) ▲8번=金然國(部工3) ▲9번=李相敏(醫3) ▲10번=金昌洙(醫3) ▲11번=閔庚煥(佛3) ▲12번=宋炳旭(印3) ▲13번=金昌一(農3) ▲14번=廉俊根(統3) ▲15번=吳出世(國3) ▲16번=裵錫京(政外3) ▲17번=朴해룡(醫3) ▲18번=權光男(商3) ▲19번=許高譯(醫3) ▲20번=鄭世根(社工3) ▲21번=孫鎭澤(科敎1) ▲22번=池萬義(林3) ▲23번=張世茂(食工3) ▲24번=張愚雄(敎敎1) ▲25번=金睿祖(社敎1) ▲26번=孫鎭澤(科敎1) ▲27번=張勝雄(敎敎1) ▲28번=鄭愚庚(國敎1) ▲29번=朴建福(機工3) ▲30번=金睿祖(社敎1) ▲31번=孫鎭澤(科敎1) ▲32번=張勝雄(敎敎1) ▲33번=張愚庚(國敎1) ▲34번=鄭愚庚(國敎1) ▲35번=許高譯(醫3) ▲36번=鄭世根(社工3) ▲37번=孫鎭澤(科敎1) ▲38번=池萬義(林3) ▲39번=張世茂(食工3) ▲40번=朴建福(機工3) ▲41번=金睿祖(社敎1) ▲42번=孫鎭澤(科敎1) ▲43번=張勝雄(敎敎1) ▲44번=鄭愚庚(國敎1) ▲45번=許高譯(醫3) ▲46번=鄭世根(社工3) ▲47번=孫鎭澤(科敎1) ▲48번=張勝雄(敎敎1) ▲49번=鄭愚庚(國敎1) ▲50번=許高譯(醫3) ▲51번=鄭世根(社工3) ▲52번=孫鎭澤(科敎1) ▲53번=張勝雄(敎敎1) ▲54번=鄭愚庚(國敎1) ▲55번=許高譯(醫3) ▲56번=鄭世根(社工3) ▲57번=孫鎭澤(科敎1) ▲58번=張勝雄(敎敎1) ▲59번=鄭愚庚(國敎1) ▲60번=許高譯(醫3) ▲61번=鄭世根(社工3) ▲62번=孫鎭澤(科敎1) ▲63번=張勝雄(敎敎1) ▲64번=鄭愚庚(國敎1) ▲65번=許高譯(醫3) ▲66번=鄭世根(社工3) ▲67번=孫鎭澤(科敎1) ▲68번=張勝雄(敎敎1) ▲69번=鄭愚庚(國敎1) ▲70번=許高譯(醫3) ▲71번=鄭世根(社工3) ▲72번=孫鎭澤(科敎1) ▲73번=張勝雄(敎敎1) ▲74번=鄭愚庚(國敎1) ▲75번=許高譯(醫3) ▲76번=鄭世根(社工3) ▲77번=孫鎭澤(科敎1) ▲78번=張勝雄(敎敎1) ▲79번=鄭愚庚(國敎1) ▲80번=許高譯(醫3) ▲81번=鄭世根(社工3)

東大 體育中興을 위한 方案

—계획적、제도적인 태세확립을 促求한다

社說

1

수년전 수준「스카웃」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음은 主殺의 충계연맹전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와같이 본교 체육부의 핵심적인 4개 종목이 모두 과년에비해 進步하고 있어 체육동대의 앞날이 밝아지고 있다 하겠다。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은 현상에 만족도 할 수 없을뿐 더러 오히려 此際야말로 등대체육을 중시할 수 있느냐 하는 기운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란은 체육중흥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여 전 앞으로의 협조와 協助、그리고 呼應을 促求하고저 하는 바이다。

2

일반적으로 그 나타의 국력은「스포오츠」에 달려 있다고 한다。그와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校勢 체육부의 육성에 있어서는 예산의 첫째로 체육부의 강화는 종점적 임을 절실하게 요한다고 하겠다。적으로 육성해야 할 종목을 염선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것이다。

둘째로는 종점적인 돌시에 계획적 일조일석에 쉽티해질 수 는 없는 기획조차 나질 않아 순조로운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단한 노력과 현대적 사업을 처리하는 그의 자세를 촉고 그의 「낙순」대통령이 「E·월렌」은 재작년 이른봄에 한국에 잠시 들렸을때 「브렌난」「더글러스」、「브랜크」「마그너스」등 6인 이른바 자유주의파에 속하는 관료들에게 역설한다。시민권제、형사재판、경제문제등 미국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점들에 관해 장상「리레」교수로 하여금 「중교화 사회사업」를 연재하면서 불교연구와 「케른」「올덴버그」「스나르」「스첼낫」「드·라·발레·푸쉬」「발레저」등의 불교학자의 소개가 그것이었다。

이들과함께 中央學林을 중심한 金泰治씨는등경에 불교지들을해체하고 있으면서 연구논문을발표하여 속하여 연구논문을발표하고있다。1926년「불교」지를 창간하여 1927년에는 「중교와 사회사업의발달」이란 논문에서그는 일종의불교 운동을시도하고있으며 1930년에는 「조선불교약사」를 이어 1917년대 「조선불교통사」와 함께 한국불교사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어 그는 1930년에 그는 朝鮮佛敎史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1937년에 나온 그의 朝鮮宗敎史는 당시 學界로서는 후한 인연다한 찬양이었다。

그는 여기서 宗敎學의 입장에 서서 民俗學、考古學、言語學을 통한 宗敎史를 쓰고 있으니 그 前代의 종교사를 지양한 객관적인 종교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활동은 대표적인 이 몇개의 著述에 그치지않고 朝鮮佛敎月報、佛敎誌등의 편집인으로 時事的인 글들도 항상 쓰고 있었다。

한편 中央佛學 교장으로 있던 金敬注氏의「華嚴哲學」의 내용」아 1927년에 나왔고 이에앞서 1924년 白性郁박사의 學位論文인「佛敎純思想의 발췌된 내용」이 불교지에 연재되었다。

그것은 서양철학의 분석적인 發展에 대해 동양철학의 분석적 성격을 지시하는 것이었으니 불교의 스승파(Sogin)的인 성격을 띤 이미달마불교에 대한 연구이었다。이후 계속되어 발표된 논문들은 1930年代로 들어 백80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형사제판의 분야일 것으로 예재되었지만 관심거리라 하겠다。

이러한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형사제판의 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적 예상을 정확한 것으로 하기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것도 한 방법일것이다。그런의미에서 W·버거」의 「낙순」대통령과 척 비슷하지는 못하지만 지적이며、상상력이 풍부하진 못하나 용의주도하며、혁신적 은폭되나 온건하다。

「낙순」대통령은 지금까지대법원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너무 지나친때 단이 있었다고지적했다。「W·버거」는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낙순」대통령이「W·버거」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것은 그의 기질과 화려함 그리고 그가 21년간의 친구니까 그랬다고도 말하고도 정치적으로 대법원내의 자유주의파를 누축해 비리고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비등하자 법적으로 여론이 열두도 못내고 그저 따질 리적 책임을지고 조용히 아무날 없이 물러나고말았다。

「A·포터스」가 물러난후 2주일만에「낙순」대통령은 수많은 후보자들중에서「W·버거」를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는 무난히상원의 인준을 받으리라고 예상하고들 있다。

「W·버거」의 임명에 대해 여러가지 평이나 돈고 있다。

대법원내의 한 자유주의파에 속하는 판사는 퍽 신탁히 평했다。「그는 온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프란스톤」대학 역사「A·린크」는 『「W·버거」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권위주의자 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법적으로 아니다。그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다。그는 중간노선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평했다。

「제임스버나아」대학「A·알스랜드」교수는 충계 평했다。『그들 임명한것은 「미국」행정부로부터기 대된 최선의 임명이다。그는 훌륭한 법관이고 문내기도 된다』

「J·E·플레트」는그 「낙순」대통령과 「W·버거」는 그의 기질과 화려함 그리고 제난적 견해 등등만 빼놓고는 그의 기질과 흡사하다。

「낙순」대통령이「W·버거」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기질과 그의 경력이 대법원장의 자리에 적응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낙순」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너무 지나친때 단이 있었다고지적했다。「W·버거」는 그의 의견에 동조했

學問교류에 最善

□아이오아 大學校□ 하와드·R·보웬總長

지난 5월19일 아이오와 대학교「보웬」總長은 그동안의 본교와의 교류 경위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설명하였다。이 글은「보웬」총장이 미국의 본교앞으로 보낸 편지로서 그것을 옮겨싣는다。

〈편집자〉

한국대표단의 본교방문은 무척반갑고 즐거운 일이었으며, 한국에서 오신여러분들을 만났다는것은만족스러운수확이었다。

金東益총장님과 이곳에서 협의한 사항을 갖추려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아이오와」대학교에서는「東國—아이오와」계획이 조정관으로 본교의「국제학 연구원」원장인「재인스·머리」(政治學 박사) 교수가 필것이다。

그리고 공과대학 교수인「林」박사가「머리」교수를 보좌하기로 이미 동의 이계획을위해 한분의조정과 이임명될것으로믿는다。

이중요한「동국—아이오와」 경연계획중 특히주목할것은 동국대학교의 교수학생과 아이오와대학교 교수·학생들의 교환계획일것이다。이곳에 올 동국대학교의 교수들에게 우리는 1년이상씩 이곳에머무르면서 연구생활을 할수있도록 모든편의를 보아줄것이다。

1970년 가을시는 부터 이곳에도착할 동국대학교의 교수들에게는 동국대학교에서 또한 봉급을 지급할것이며 그것은 한국에있을 가족을위한 것이 될것이다。

아이오와 대학교에서는 그들등국대학교에서 온교수들에게 기숙사나 아파트를 제공할것이며 교환기금에는 여행비, 식비및 잡비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출되는금액은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류융화하는데 아무런 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 지급되어야한다고 양교는 동의하였다。특히 교환교수나 학생들은 미국의 풍습을 익히고 언어생활에 숙달될 수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러한 교환계획에필요한 기금이충분한 아보될때 까지 달분간은 아이오와 대학교수와 그가족들은 한국에 가지않을것으로 합의되었으며 기금을 절약하기위해서는 이곳에서 같교수들의 한국체류기간은 적당하게 조정될것이며 가족을 동반하는것도 고려되어야할것이다。

동국대학교의 김총장님은「아이오와 대학교수·학생」들이 한국에가 면 그들이 필요로하는한국에 대해서 매에 따라서는 개인교수들제공하여 강의지도해주겠다고 말했다。

兩校 조정관두어 합리적관리

敎授엔 연구에 필요한 편의제공

특히 양교를 가교로하여 한국과 미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것이며 기금은 우선 양교의 문화적행사와 교류 기금의 일부는이 번 협조하여야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결연계획에 관련 대학교는 앞으로 더욱긴밀한 관계로 보탤찬 내용을 기대한다。

아이오와大學校 총장「하와드·R·보웬」

본교와 美國「아이오와」 대학교간의 교수, 학생, 학술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추진이 시작된것은 68년5월 金東益총장 취임직후부터였다。金총장은 취임사에서 東國의 해외진출을강조하고 이를곧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교를 대표하여 뉴욕의 하와드·체이스財團에 근무중인 柳永洙동문, 아이오와 대학교를 代表해서는 하와드·체이스씨가선정되어 거중조정을 맡아왔다。하와드·체이스씨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동문으로 東大에서 법대학사학위를 받은바 있으며 본교가 아시아에서 불교를 교육이념으로하는 유일한 불교대학임을 소개하였으며 보웬총장은 1968년8월28일 유영수 동문에게 동의한다는 뜻을 결연에 전해왔던것이다。이에 본교 金총장은 아이오와大學이 훌륭한대학임을 확인하고 미국의 유영수동문에게 적극추진할것을 지시하는 한편 양교의 결연에 소요될 基金확보 문제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그후 유동문과 체이스씨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섰다。兩校의 결연提議는 처음 아이오와대학교의 저명한 동문의 한사람인 하와드 체이스(뉴욕 Public Rdta lions 社長)씨에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발족을위한 예비회담은 금년4월2·3일양일간 본교를대표한 동문유영수씨와 아이오와대학교 총장사이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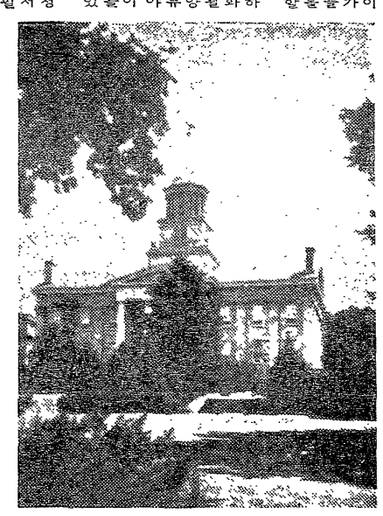
이에비탈세 본교를대표한 유동문이 아이오와대학교 하와드·R·보웬총장에게 제의한 사항은 아이오와대학교와 상호유대를 깊이 하기를바라고있으며 또한 그중비태세도 되어있다。②여기에필요한 기금은 미국의 여러독지가나 기업체로부터 구하기위해서 계획에참가할 사람들의 관심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결연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기금과 재단이필요한 경우는 드물것으로믿는다。

한편 양교측의 조정관들은매년 기금의 효율적인관리, 사용에 대해합의할 것이다。그 중요한 결연을 맺게될것으로 믿는다。다만 양교는시로 도움주 있기를 바란다。

동국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간의 결연계획은 앞으로 더욱긴밀한 관계로 보탤찬 내용을 기대한다。

아이오와大學校 총장「하와드·R·보웬」



◇이이오아大學本部

◇金총장이 보웬필드總長에게 기념패 전달광경

美國의 名門과 이어지는 學問의 架橋

이이오아

結緣 그 경과

<문동洙柳>

<씨스헤드리>

基金확보 樂觀的

相互敎授·學生교류와 연구에 기대커

在美各界人士 호응至大

보통주있다。③Clue fre peubody company로부터 기증받은 2만弗은 이미 입주되었으며 교육기금조성도 크나 큰것이었다。이 기금은 양교의 교육의 교류와 연구의 아이오와대학교와 아이오와대학교 교총장이 본교를 방문하여 지상의 한국단체회원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본교와 아이오와 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계기로 상대방의 문화교류와 연구가 앞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뿐만아니라 미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수·학생을 포함하며 아울러 지상의 한국단체회원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본교와 아이오와 대학교와의 결연기간 동안 필요한 기금확보를 위해 교총장이 본교를 방문하여 교수·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에 대한 회의와 토론과 대학교에서 강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의 본교와「아이오와」대학교와의 결연사업을 위해서는 在美同門을 모셔서 두대학총장이 회의 예술 문화분야는 광범위 하다。이러한 한국문화 예술 분야를 담아 한 한국문화에 대한 회의와 토론과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로저스·B·트레드」씨는 70年度分기금으로 2만「달러」를 기증하였고 지난번 金총장 부처의미국방문 여비를 부담하는 국방문 예비를 부담하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방문단 본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받은바 있는 美국회 下院의교분과위원「윌리암·S·롤필드」위원도 物心양면으로 이번 결연사업 에 협조하고 있어 그들의 노력도 크다。

◇이이오아大學校 총장 韓相七(夫·國文科 卒) 東國大 高文科 교사

夫婦同門 순례

韓相七(夫·國文科 卒) 東國大 高文科 교사
金裕淑(婦·國文科 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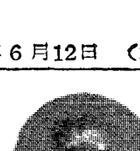
○:지난 4월 25일로 소식이 감감했던 시절 이었고, 國文科는 분명「그 결혼 제5주년 기념일을 맞은 韓相七 (32)씨와 金裕淑(29)여사는 65년도에 결연식을 치른 國文科동기동창。 아침에는「七寶寺」의 本鐘소리에 잠이깨고 피톨 토하듯 사무치게 울어대는 소쩍새소리에 잠을 깨 청하는「그 불쌍한 사람들」 선택된 學科「그」 「恩惠를 마련하고」 「無我」境의 평온한 가정을 꾸려가는 「夫君은 57년도에 입학했으나 건강문제로 휴학하고 인연에서부터 한선교의 친밀도가 빈약하던 학생회 운영을 활발하게할것이며 高校시절의 학생회장 경험과의 지일한 관계로적극 참여를 시작하고 그리하여 東國70年代를 떳떳이 자랑해 보겠다고 자신에차 있다。그는 慶熙大의 지지 전망은 밝다면서 目 헌신적인회생으로 建設이념을 되찾아, 전국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나섰다는 ROTC생도。소극적이고 배타적인 동국인을 체육중심으로 단결시키겠다면서 과거행정적인면에서부터 한선교의 친밀도가 빈약하던 학생회 운영을 활발하게할것이며 高校시절의 학생회장 경험과의 지일한 관계로적극 참여를시작하고 그리하여 東國70年代를 떳떳이 자랑해 보겠다고 자신에차 있다。그는慶熙大의 지지 전망은밝다면서 目 헌신적인회생으로 교생이 공감할수있는 등 수많은 문화사업을 고취시키고자 나섰다는 ROTC생도。소극적이고 배타적인 동국인을 체육중심으로 단결시키겠다면서 과거행정적인면에서부터 한선교의 친밀도가 빈약하던 학생회 운영을 활발하게할것이며 高校시절의 학생회장 경험과의 지일한 관계로적극 참여를시작하고 그리하여 東國70年代를 떳떳이 자랑해 보겠다고 자신에차 있다。그는慶熙大의 지지 전망은밝다면서 目 헌신적인회생으로

總學生會운영의 妙살려

◇李相一〈食3〉

學園의 순수성회복을

◇李憲九〈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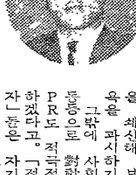


學生권익·創意性살려

◇金洪萬〈行3〉

學生여론 重視할터

◇孫英一〈哲3〉



정의와 信念으로

◇林承宰〈醫3〉

총학생회장을 向한 7人의 얼굴

東大像의 구현을

◇李瑞行〈哲3〉

서클활동 장려할터

◇李用熙〈自工3〉

夫婦동반 冊사기 즐겨

文學修業이 一生의設計

단일후보가 傳統이라고

新版「아더메치유지징」

古今思想界에 異彩를띤 쇼펜하우어의 代表的인 名著!

쇼펜하우어 著 巨影 譯

슬픔과 사랑의 哲學

이책은, 人間의 不幸은 宿命的이라고 말하는 著者기 삼은 삶의 지혜를 提示한 새롭고 뚜렷한 處世論이며…人生의 가시밭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永遠한 마음의 糧食이 될것이다.

高級橫造洋裝 값170원 新潮文化社 刊 TEL (72)·3652

絶讚 俳歌 完中!

金田有名 著作 쇼펜하우어 著 巨影 譯

이이오아 大學校 총장 보웬 필드 來韓 기념 연회

日語 會話速成班 文章硏修班 初步부터 原書까지 特別指導 "오붓한 圓卓講義" 連絡處 전화 (73) 0 5 9 2 鍾路區 苑西洞 二一一

Show-car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Show-car에 한류음의 접을 실고 유쾌한 관동의 멋들어진 호흡하며 저녁한 때를 스카이·웨이를 비롯한 제2한강교및(송도에서 1時間의낭만) 경인고속도로 위를 달리고저 하오니 강 호제현에 뜨거운 협찬을 바랍니다。

주민등록증분실 공고 본적 충남대덕군탄동면자운리 277 주소 서울 성동구 홍익동 736번지 金 喜 1955년12월30일생 주민등록증번호 110415-1077747 분실년월일 1969년3월12일9시 분실장소 하왕십리~청계천 잡급행버스내

本鍾 분실 공고 住所 전남광양군광양읍월성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량진동구5-337, 4동12반 姓名 장동수(농과2년)

농과	1년	전호선	법과	4년	김종각	농과	3년	이원규	식품공학과	4년	김경배
사학과	3년	김건작	국문과	4년	김새규	농과	4년	김찬경	불교과	3년	최명준

행정학과 학생증번호 찾아 가시오 1년 조희수 우한생은 신문사에와서 한 생증을 찾아가시오

夫婦同門 순례

韓相七 金裕淑

○:지난 4월 25일로 소식이 감감했던 시절 이었고, 國文科는 분명「그 결혼 제5주년 기념일을 맞은 韓相七 (32)씨와 金裕淑(29)여사는 65년도에 결연식을 치른 國文科동기동창。 아침에는「七寶寺」의 本鐘소리에 잠이깨고 피톨 토하듯 사무치게 울어대는 소쩍새소리에 잠을 깨 청하는「그 불쌍한 사람들」 선택된 學科「그」 「恩惠를 마련하고」 「無我」境의 평온한 가정을 꾸려가는 「夫君은 57년도에 입학했으나 건강문제로 휴학하고 인연에서부터 한선교의 친밀도가 빈약하던 학생회 운영을 활발하게할것이며 高校시절의 학생회장 경험과의 지일한 관계로적극 참여를시작하고 그리하여 東國70年代를 떳떳이 자랑해 보겠다고 자신에차 있다。그는慶熙大의 지지 전망은밝다면서 目 헌신적인회생으로

○:그때의 金총장은 어느 敎授가「내게 장가 오는날 나는 평생 늙지 않을것이다」 말 패륜한 아가씨。반면 韓총장은「침울한 얼굴을 잘하는」청년이었고, 사람을 멀리라는 韓 동문과「실용나면 뱉아 버리는」성격인 金여사와의 사이에는 가끔 冷觀이의 부어지나 持久力이 강한부 인에게 韓동문은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가정경영의 지침은 분한것」을 마련하는 외 主義。책을 살 때는 부부동반。「청계천을 한 바퀴 돌면 다리가 아픈 것」을 참고 견뎌 내는 것은 오늘날 부부의 말에 韓동문은 싱겁게 웃는다。韓동문의 미래설계는 오로지 文學수업을 마치는것。文學的 기반이 닦여진 후라야 인생설계도 할 필요가있다면서 일찍「노·코멘트」

○:언제나 밝고 건강한 이들 부부사이에는「술을 마시고 들어와 허튼 수작을 하면 깔짝거리고 웃어댄다는」 손찌검을 하지 않을 方針이라는 가르치심이 있다고。

「언제나 희생적이고 밝은 웃음을 잊지않는」부인을 집에 남겨두고 혼자 나가는 夫人의 말을액면대로 받아들이면「그러나 피래미새끼 한마리 가져온 걸 못봤다」고。 최근에 카메라를 구입해 놓고 셔터를 눌러대면서 마구 직성이 풀리는데, 낚시대신「필름」장수 돈벌이 해주기에 且下 努力 中이다。

〈趙〉

在美各界人士 호응至大

相互敎授·學生교류와 연구에 기대커

基金확보 樂觀的

會話速成班 文章硏修班 初步부터 原書까지 特別指導 "오붓한 圓卓講義"

連絡處 전화 (73) 0 5 9 2 鍾路區 苑西洞 二一一

原稿募集

금년 本校 行政大學院에서는 行政論叢創刊號에 揭載할 原稿를 다음과같이 募集하오니 學生들의 많은 應募있으기를 바랍니다。

記

一、原稿募集=六月十日~七月十日까지
一、原稿枚數=六〇枚限
一、應募資格=行政大學院 在學生
一、提出處=行政大學院 敎務課

一九六九年六月 日

東大行政大學院 行政論叢編輯委員會

축전 행사 주행운권 추첨에 협조하여주신분들

진미상사…행운상패
훼드라상사…와이샤쓰5장, 티샤쓰3장
금강상사…와이샤쓰2, 런닝3, 내의15
삼화성업…쥬스80통
조광산업…T샤쓰10, 스타킹5, 울바지6
쥬쥬화장품…화장품3셋트
아모레화장품…로션12개
국제기업공사…라이타20개
메론제과…비스켓54상자
중앙극장…초대권20장
명보극장…초대권10장
서울스포츠센타…베드민트라켓2쌍, 공6개
정화사…썬그라스1개
영창당…은수픈, 훠크, 1셋트
한미라사…양복기지 한벌
사진예술원…총천연색사진촬영권2매

輸入品의 綜合店 동양당 WEAR WITH PRIDE! 서울/南大門/市경앞. 22-5807 얼굴에 잘맞는 안경을 선택 하십시요!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
●자외선을 막으며 눈을 보호하는 HANICON 렌즈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며. 쓰기에 가장 편함
●전문의사의 정확한 검사하에 제작하므로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음。
●자세한 설명서 무료 우송함。
유사한 명칭이 있으니 「한일」을 확인 하십시요。
한일 콘택트렌즈 서울·종로2가102-3 TEL. (75) 1518 (종로·아카데미극장 건너편)

사진芸術苑 서울 鍾路2街39番地 파고다公園앞 전화 101번 74 3018 東大 本部 二층 寫眞室 代表 本生南

관인 I.L.I. 학원
◎美國人 영어會話 (강사 Mr Suttn·Miss Ricnard의 5명출강中)
◎日語 (문법·회화)
◎한국인 영어會話 (원장先生 직강)
◎불어(문법·회화)
◎독어(Das Beste)
◎시사영어(Time & Digest반)
자매학원(관인 중앙타자학원) (男女대학생 육군타자병) 종로2가 크라운제과 맞은편 (72)1817
개강 6月9日
장소 종로2가 네거리 삼일로옥 이명태고약집 (72)1817

高亨坤著 禪의存在論的究明 東大構內書店에서販賣中 哲學硏究會刊 값五〇〇원

李箱의 限界狀況

千成姜

作品上의「거울」을中心으로

작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의 생애, 개성, 성격, 교육정도및 경력은 문에비평의 일부로써 그 作家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와 반대로 개개의 작품에서 얻은 結論을 결합하여 작가의 個性과 人生·世界觀을 유추할 수도 있다。많은 비평가는후자의방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李箱의 경우는 더욱그러하다。 그 이유는 李箱 자신에대한 생애의 記錄이 不明確하기 때문일까?

의식적인 自意識의 끈질긴 추구를 이해하기에 어려운 작가도 경우만큼 적어도 李箱의 경우만큼 없다。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작가도 없다。그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詩 역시 그런「카테고리」를 벗어나지않았다。 李箱의 雜點속에서도 작품마다에 구현되는 한계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을 分析·綜合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거울을 향하여 머로질을한다。잘못 해서 나는 상체기를 내인다。나는 곧을 벌컥 내인다。그러나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正面으로 衝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찌스트를 다하여 제 자신만을 辯護하는 때문에 나는 좀 처 犯人을 찾아 내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終生記。방점필자) 李箱은 많은「나」를 가졌다。이렇게 많은「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分裂되는 「나」다。 단독자로서 다른 누구와도 대치할 수 없는 전혀 독자적인 실존의「나」인 것이다。이와같은 두 가지의「나」가 서로 相馳·충돌하는데서 李箱의 문학은 出發한다。이 둘의 我는 항시 뒤섞이고 그것은 이윽고 한계를의식하게 하고 벌과 같은 경계선에서 좌절 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다른 예는 그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일례로「날개」에대해서 論及해도 좋을 것이다。

「19세기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지나가버리고 싶어 스또엡스끼 정신이란 자칭하면 浪費인 경감소。 유우고를 불한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포言인 듯 실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模型에 있어서 떠벌일 때 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禍를 보지 마오。」

19세기의 도스토엡스끼의 개인 휴메니즘과 유고의 사회주의, 이 사이의 틈에서 우왕좌왕했음이 보인다。李箱은 그 이 늑폭으로도 기울지 않았음은 인용문을 잘 읽으면 과악된다。19세기는 불쾌하고 사회주의를긍정하 지만「떠테일」때문에 속아 禍를 당하지 않으려 했다。결국 李箱은 19세기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19세 의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믿음의 상정의 수법이기때문이다。象徵的 표현은 나타내기 모호한 것을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나 음 향적 표현을 통하여 그 실을 인식하고 개인價値觀으로써 處理하기보다도 더 조금한 자신의 肺腑이란 육체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李箱은 현실을 망각, 도피했다는 점 그의 소설에서 찾을수 있지만 詩「家庭」「遺訓」「詩第一號」를 위시한 다소의 작품이 사회의식을 느끼게 할은 形而上學的인 사념의 착란성을 形而下學的으로 나아가서는 육체로 증정하는 표현방법이다。象徵的 표현은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나 거울, 孤獨의 渴望者이다。 나는 거울속의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어떻게 하는中일까。」—(詩第十五號의1) 「거울속의나」와「나」는 서로 만지지못하며「나」는 두려워「거울속에서 解放하려고 나는 거울이었다는 사념로돌래들어간다」 그러나 서로 결합할 수 없게 된다。 「내가 缺席한 나의곁. 내偶遇가 등장하지않은내 거울. 無聲이라도 좋은나 는 드디어 거울속의나 에게 自殺을 勸하기로決 心하였다。」—(詩第十五 號의4) 둘의「나」가서 로 일치할수 없어「나」는「거울속의나」에게 자기를 죽을 권하면서 자기를용 납하고 긍정한다。「거울 속의나」는 偽造가 없고 순진이 아니다。 「거울을 향하여 머로질 을한다。잘못 해서 나는 상체기를 내인다。나는곧 을 벌컥 내인다。그러나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正面으로 衝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찌스트를 다하여 서로 뒤섞이고 나는 항시 뒤섞이고 그것은 이윽고 한계를의식하게 하고 벌과 같은 경계선에서 좌절 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다른 예는 그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일례로「날개」에대해서 論及해도 좋을 것이다。

「19세기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지나가버리고 싶어 스또엡스끼 정신이란 자칭하면 浪費인 경감소。 유우고를 불한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포言인 듯 실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模型에 있어서 떠벌일 때 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禍를 보지 마오。」

19세기의 도스토엡스끼의 개인 휴메니즘과 유고의 사회주의, 이 사이의 틈에서 우왕좌왕했음이 보인다。李箱은 그 이 늑폭으로도 기울지 않았음은 인용문을 잘 읽으면 과악된다。19세기는 불쾌하고 사회주의를긍정하 지만「떠테일」때문에 속아 禍를 당하지 않으려 했다。결국 李箱은 19세 기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실을 인식하고 개인價値觀으로써 處理하기보다도 더 조금한 자신의 肺腑이란 육체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李箱은 현실을 망각, 도피했다는 점 그의 소설에서 찾을수 있지만 詩「家庭」「遺訓」「詩第一號」를 위시한 다소의 작품이 사회의식을 느끼게 할은 形而上學的인 사념의 착란성을 形而下學的으로 나아가서는 육체로 증정하는 표현방법이다。象徵的 표현은 나타내기 모호한 것을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나 음 향적 표현을 통하여 그